"개인위생 수칙 준수 중요"

강임준 군산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8일까지 2주 연장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된다. 다만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해제되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2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및 보호자가 필요한 6세미만의 영유아 등 대해 8인까지는 허용하지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운영제한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은 타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 시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및 상시점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가 강화된다.

군산에는 지난 11일까지 3천 여명이 접종을 완료해 64.8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요양시설 65세이상 백신 접종이 추가로 시작된다. 또 현재 68명의 이상반응이 조사됐지만 모두 경증으로 단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백신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군산에는 13일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봄철 나들이객이 군산을 방문하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타당성 확보 속도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익산시가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확보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타당성과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제출과 사전 연구기획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용역을 수행하는 한양대 산학협력단 한동운 교수팀은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과 정치권의 지역공약(한병도 국회의원 공약에 포함)과 연계 방안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출할 전략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해 2019년 11월 익산시의회와 함께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희귀질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하반기에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했다.

익산시는 교통 요충지이며 원광대병원과 함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풍부한 보건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희귀질환은 세계적인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전 세계 인구의 4%(약 3억명)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80%는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체계적인 진료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국립희귀질환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며 "관계 기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기관 유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인기몰이

CJ, 하림 등에 2만3천톤 공급… 전체 생산량의 22% 차지

익산에서 생산된 쌀이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기업 맞춤형 쌀 납품으로 420억원의 농가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기업 맞춤형 쌀 원료곡 2만3천톤을 생산해 CJ와 ㈜하림, 본아이에프 등에 공급한다. 이는 익산시 전체 벼 생산량의 무려 22%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지난 12일 생산단지 대표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생산단지 대표 농가와 경영체 관계자에게 재배관리 요령과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참여 농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단지 여건과 볏짚 사용 여부 등 엄격한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3일 1천800여 농가, 생산단지 3,050ha 를 선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에 선정된 생산단지는 종자부터 수확까지 재배관리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원료곡 2만 3천여 톤을 대기업에 공급해 42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쌀 공급량을 확보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공급량 1만4천738톤에서 2019년 1만7천100톤, 지난해 2만800톤, 올해 2만3천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CJ에 쌀 공급을 시작한 이래로 4년 만에 CJ 쌀 공급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철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익산, 국제철도 중심도시 밑그림 '착착'

여객 철도 넘어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익산시가 여객 철도에 이어 국제화물철도역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며 명실상부한 철도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철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가 맞붙어 있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한반도 호남축의 대표도시인 익산시가 새로운 국제철도화물의 관문 역할을 선점·수행하고 정부 추진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책임연구원인 임광균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국제물류 철도 여건과 수송 현황, 국제 화물철도역 조성 사례 등을 토대로 익산시 국제화물 철도역의 입지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장래 호남권 전체의 국제화물 물동량을 2045년 기준으로 74천TEU, 148천TEU, 171천TEU, 343천TEU 등 4개 시나리오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별 총사업비를 각각 249억원, 389억원, 418억원, 728억원으로 산정했다.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란 20피트(6m정도)길이의 컨테이너 크기 단위을 뜻한다.

향후 경제성 평가와 종합 평가를 통해 최적안 규모를 도출할 계획이며 국제화물 철도역 구축 로드맵을 최종 제안해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우선협상대학 선정

향후 5년간 사업비 30억 지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우선협상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원광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5년간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로부터 매년 6억원씩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ㄹ,ㄱㅊㅊㅋㅎ5호,ㄹ607-ㅓㅗㅎㅌㅇㄷ자 업은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16개 대학이 우선협상 대학에 선정됐다.

원광대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운영 성과평가에서 2016년도 평가부터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대학에 선정돼 사업비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진로 및 취업 지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선정하는 '청년드림 Best Practice' 대학에 2017년 취업 분야, 2018년 창업 분야에 이어 2019년에는 진로 분야에 선정되면서 3년에 걸쳐 진로, 취업, 창업 3개 분야 모두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에 선정된 국내 유일의 대학이 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11건과 군산항 화물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 처리는 물론 간담회와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할 예정이다.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뤘다.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김경구 시의원(대표위원), 김영현 공인회계사, 심상근 세무사, 김재민 세무사, 전순미(퇴직 공직자) 5명이 선임됐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의안처리를 꼼꼼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국청년센터 운영위 개최

군산시가 전국 청년센터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청년뜰은 지난 10일 청년뜰 3층 세미나실에서 전국 청년센터와 협력과 상생을 위한 '전국청년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청년센터 중 전국청년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임원을 맡고 있는 군산시, 경남, 광주, 대구, 서울, 세종, 울산, 청주센터 총 8개 지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권역별 청년센터 운영현황 공유, 소통창구 활성화 방안 등 청년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전국의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모여 청년센터의 협력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발족하였으며 전국의 16개 지역 28개 청년센터의 협력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